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교육에 관한 연구

이 은 규 교수
(D.R.E., 안양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담이론의 종류들을 일반상담과 기독교 상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상담의 주요 요소들과 관계된 전제들을 고찰하여 기독교 상담은 일반상담과의 종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글은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위해 기독교상담의 기본원리와 기독교상담의 독특성을 고찰하여 일반상담과 다른 정체성을 기독교상담은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으며, 명확한 정체성을 위해 신학적 체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위해 기독교적 관점의 교육과 정체성의 중요성의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중심단어 :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기독교적 관점, 기독교상담의 독특성, 통합, 기독교상담의 원리

I. 여는 글

Jay E. Adams는 “상담의 기원을 아담을 상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시킨다.”¹⁾ 그러나 기독교(목회상담)의 필요성의 자각은 외부의 자극과 지적에 의한 것이었다. 급변하는 사회와 대형화되는 교회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신자들에게 교회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거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려는 예배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는 미흡하다. 그 이유는 예배가 점차적으로 형식화되어가고 있고,

목회자들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²⁾라고 일반상담학자들은 생각한다.

이러한 실제적 관점에서 기독교상담자(목회자, 교회지도자)와 교인간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되는 생의 설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담이라고 기독교 상담학자나 일반 상담학자 모두가 주장한다. 즉 교회의 전통적인 방법을 효과 있게 보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상담이다.

새로운 것이 좋다고 해서 일반 상담이론들이 비기독교적 전제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상담자들이 세속적 상담이론을 검증 없이 채택한다면, 이것은 예서가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이 글은 상담의 이론들,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상담의 정체성교육 등의 고찰을 통하여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위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하려 한다.

II. 펴는 글

1. 상담이론

상담 이론의 종류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일반상담 이론의 종류들과 기독교 상담 이론의 종류들로 구분하여 고찰할 것이다.

1) 일반상담 이론의 종류

현재 일반상담 전문가들이 시술하고 있는 상담접근 방법들을 조사한 근거로 T.B. Karasu는 36가지의 상담 방법들이 상담 전문가들 사이에 알려져 있고 또 유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또한 이같이 다양한 방법들을 학계에서 대체로 인정하는 잘 알려지고 분명한 이론적 공통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크게 구분해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상담이론으로 분류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³⁾ 이것을 근거로 세 가지 기본적인 상담이론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하였다.

(1) 역동적 통찰 중심의 상담접근 이론

이 상담 이론은 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을 기초로 하는 상담방법으로써 인간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억압된,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적응장애의 원인이 되며 따라서 이 억압되고 해소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습득하고 이를 사회의 국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해소 내지는 충족시키는 능력과 방법을 배워가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의 대표적 학자로서는 Freud, Jung, Adler, Sullivan, Horney, Fromm, Wolberg 외 여러 학자들이며, 이 이론에서 파생한 상담방법들은 13가지 정도가 된다.

(2) 실존적 경험중심의 상담접근 이론

이 상담 이론은 실존주의와 인본주의를 기초로 한 실존분석과 내담자 중심의 치료를 중심으로 발전된 상담 방법으로서 인간이 내적, 외적 주위환경의 방해로 인격이 원만히 성장하거나 발달하지 못해서 그 갖고 있는 잠재 가능성이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적응장애 또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내담자 자신이 상담 관계의 경험을 통해 인격의 발달과 잠재 가능성의 최대한의 실현을 위해 추구하고 성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로서는 유럽의 Frankle과 미국의 Rogers, Perls 외 여러 학자들이며 이 이론에서 파생한 상담 방법들은 약 12가지 정도가 된다.

(3) 합리적 행동중심의 상담접근 이론

이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합리주의를 기초로 하는 상담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과거 학습의 결과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적응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학습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것을 학습한 것이 적응장애의 원인이요, 중요한 문제임으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적응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재학습하는 과

정이 상담이라고 한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Wolpe, Ellis, Glasser 외 여러 학자들이며 이 이론에서 파생된 방법들이 약 11가지 정도가 된다.

2) 기독교 상담 이론의 종류

기독교 상담 이론과 실제의 종류에 대해 Gary R. Collins는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을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기술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입장은 일반상담 이론과 방법이 그대로 직접 기독교 상담 이론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의 입장을 변화하고 주장함으로써 양자 간의 차이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견해이다. 이 견해의 소유자들이 현재 기독교 상담계의 주류(majority)를 이루고 있다.

둘째 입장은 기독교 상담은 반드시 성경만을 기초로 해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로서 이 입장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 학자들, 전문가들이 취하는 것이다.

셋째 입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반상담 이론을 종합해서 기독교 상담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로서 이 입장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 학자들, 전문가들이 취하는 것이다.

넷째 입장은 기독교와 세속학문 간에 존재하는 갈등하는 문제들을 연구를 토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한다.

다섯째 입장은 복음주의적 평신도 중심의 지도자들의 견해로서 신자의 실제 생활과 성경의 가르침을 연관시켜 신자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입장을 취한다.

본 논문은 위의 분류와는 달리 현재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이 앞에 기술한 일반상담 이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독교 상담 이론을 정립 또는 시술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었다.

(1) 무차별 혼동주의 기독교 상담

심리학 및 사회과학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의 차이점을 전혀 인

정하지 않고 두 가지 모두를 동일 차원에 두고 혼용 활용하여 상담을 시술하는 입장으로서 이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Hiltner, Clinebell, Oates, Wise, Hums 외 여러 학자들이다.

(2) 차별 종합주의 기독교 상담

세속적인 일반상담 이론과 가르침 사이에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두 가지를 종합할 수 있고, 따라서 종합한 것을 기초로 기독교 상담 이론을 정립하고 시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이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Collins, Narramore, Crabb, Meier 외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Collins와 Crabb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① Crabb의 상담이론

Lawrence J. Crabb 박사는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고 성경적 목적으로 상담목표를 설정해야함과 동시에 상담의 효과를 위해서는 심리학적 역동성들과 치료학상의 기술적 연마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⁵⁾ 첫째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서로 서로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나 교회의 특별한 지도자들이 성경적 원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자가 장시간에 걸쳐 치료해 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목회상담은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류이며 단기 상담이고 지시적 상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그는 판단한다. 그러나 오늘날 세 번째 상담에 있어서는 심리학과 기타 여러 정신의학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는 규정하고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Crabb 박사는 현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대에 와서는 전인적인 인격과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자아의 자유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망은 사라지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조차도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되는 인간적인 관심사에 더욱 마음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목적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상담의 목표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⁶⁾

또한 그는 상담과정에서 피상담자의 변화되어야 할 내용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한다. 종종 행동주의 상담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상담자의 징후가 문제의 전부라는 의견은 오류라고 지적한다.⁷⁾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성경적 상담이론은 피상담자의 징후 뿐 아니라 피상담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잘못된 가정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변화시켜 성경이 원하는 행동을 창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로저스는 감정을 새롭게 하고, Skinner는 환경을 새롭게 하려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의 말은 그의 주장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⁸⁾

이러한 Crabb의 이론이 Adams의 이론과 비슷한 것 같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다. 비록 크리스천의 성숙이 성경적 상담의 중심적인 목표라는 두 이론의 견해는 일치한다 하더라도 권면적인 전략이 목표를 성취하는 모든 다른 가능한 방법을 배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점에서 Adams의 이론과는 구별된다. 즉 강하고 견고한 권면이 옳고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부드러운 지원, 격려, 관심 있는 경청, 내적인 역동성의 탐구, 감정의 반영, 분석, 용납 등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대체로 이 이론의 상담과정은 다음의 일곱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 문제의 감정을 확인하라. 둘째 단계, 문제의 행동을 확인하라. 셋째 단계, 문제의 사고를 확인하라. 넷째 단계, 성경적 사고를 명백히 하라. 다섯째 단계, 안전한 결단을 내려라. 여섯째 단계, 성경적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라. 일곱째 단계, 영적으로 조절된 감정을 확인하라.⁹⁾

② Collins의 상담이론

Gary R. Collins의 상담이론은 그의 저서인 「크리스천 카운셀링」¹⁰⁾과 「효과적인 상담」¹¹⁾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Collins의 상담이론은 대단히 종합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상담에 대한 이론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대중적이라는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약점도 지

니고 있는 차별 종합주의 기독교 상담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상담이론이다.

(3) 분리 성경중심주의 기독교 상담

세속 학문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종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면서 그러나 세속 학문의 가르침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상담은 근본적으로 성경만을 기초로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 이론과 방법이 정립되어야 하고 또 시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Jay E. Adams가 이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또 가장 순수하게 성경적 상담을 확고하게 정립한 실질적인 전문가이기도 하다. 같은 기독교 신자들이 왜 이와 같이 일반상담 이론과 방법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세속적 상담이론의 기초가 되는 상담의 주요 요소들의 정의 속에 포함된 기본 전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상담의 주요 요소들과 관계된 전제들

상담의 주요 요소로서 네 가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첫째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된 인간관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적응장애의 의미를 고찰하고, 셋째로는 변화요인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고, 끝으로 상담자의 자격에 관해서 고찰할 것이다.

(1) 인간관

① 일반상담 이론의 경우 - 앞에서 본 현대 일반상담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에 따라 인간관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종합하면 일반상담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전제로서의 인간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을 동물과 동일 차원에서 속한 존재로 보는 진화론적 인간관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최고이며 인간은 자율적이며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소유한 존재라고 보는 인본주의적 인간관이다.¹²⁾

② 기독교 상담의 경우 - 비교를 위해서 기독교 상담의 인간관을 기술하려 한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후에는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다.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러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소유하지 못한 피조물이며 불완전하고 부패한 존재가 인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2) 적응장애의 의미

① 일반상담의 입장 -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의 문제는 적응장애 또는 부적응 행동이라고 불리어지는 현상으로 종합하면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 못하거나 또는 대인 관계에 적응을 잘못하는 상태를 적응장애라고 한다. 이같은 적응장애는 개인의 최적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조건이나 환경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② 기독교 상담의 입장 - 학자에 따라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와 영적 문제를 분리해서 심리적인 문제는 일반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영적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죄와 연관시켜 부적응(적응장애)을 규정짓기도 한다.

Adams 같은 철저하게 성경적 상담을 주장하는 입장에 의하면 신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문제와 영적 문제를 분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자들이 직면하는 모든 적응장애는 근본적으로 죄가 그 원인이라고 본다.

(3) 변화요인에 관한 견해

① 일반상담의 입장 - J. Marmor는 그의 글에서 상담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중요한 요인들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대인 관계를 특징적 요인들로 신뢰감, 래포(Rapport), 상담자의 진실된 관심, 존경, 공감 그리

고 내담자의 동기를 지적하였으며 나아가서 상담과정 중에 일어나는 변화요인으로 감정의 발산, 문제에 대한 인지적 학습, 조작적 재조건화 암시와 설득, 상담자에 대한 동일시, 지속적인 현실 검증 그리고 적응 방법의 연습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¹³⁾

② 기독교 상담의 입장-전술한 일반적인 변화 요인을 한편으로 인정하면서 본래의 기독교 상담의 경우에만 국한하는 가장 핵심적인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다. 강조해서 말한다면 이 두 요인만으로도 기독교 상담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요인을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라는 점이 일반상담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4) 상담자의 자격

① 일반상담의 입장 - 일반적으로 심리학 또는 심리학의 인접분야인 교육심리학 혹은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자로서 최소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상담전문가라고 부르고 있다.

② 기독교 상담의 입장 - 대체로 일반상담 전문가의 자격에 추가해서 성경 연구의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기독교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나 본래의 기독교 상담을 주장하는 입장에 의하면 정규신학 과정을 이수한 정도의 성경연구의 배경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면 기독교 상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경적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능력이나 활약 보다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사역이 변화요인이 되기 때문이다.¹⁴⁾

4) 기독교 상담의 문제점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일반상담과 본래의 기독교상담과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의 교리를 기초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인 상담전문가가 신자,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내담자를 대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시술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와 대조적으로 목회상담은 지역교회를 근거로 목회사역의 일환으로 상담을 시술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목회상담은 기독교 상담의 극히 작은 한 부분에 해당하는 특수한 형태의 상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상담 중에서도 목회상담과 일반상담을 비교할 때에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인간관, 성경관, 그리고 성령관의 타협 없이는 통합이나 종합을 시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로 더 이상의 언급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장에서는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 사이에는 종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들이 있음을 다시 지적해 볼 뿐이다.

2.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의 차이는 분명하다. 하지만 기독교상담 사이에서도 심리학에 대한 일치성이 없다. 때문에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란 힘들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교상담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란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면,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은 요원한 일이다.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을 논하기 보다는 기독교상담의 기본원리와 기독교상담의 독특성을 논함으로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제시할 것이다.

1) 기독교상담의 기본원리

황규명은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확립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틀을 세우기 보다는 그 틀 안에 있어야 하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수 있다.”¹⁵⁾고 제언하며, 기독교상담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7가지 원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¹⁶⁾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할 때에는 그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치료도 바로 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그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상담이 없이는 본래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 수 없다. 즉 상담은 인간 삶의 일부이며 타락전부터 필요했다.

(2) 죄로 인한 타락

성경적 상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는 사실에서 출발점을 찾는다. 일반 심리학은 이 두 가지 원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심리학의 연구를 근거로 인간의 문제를 하나의 맥락 안에서 풀어 나가는 변화의 과정인 상담은 대상인 인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3) 마음의 문제

상담이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마음의 변화가 외야,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나온다'기 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친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4) 상담의 주요 도구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인간의 마음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5) 성경적 상담의 본보기

성경 속에는 주님의 상담의 실체가 많이 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보기가 된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 부자청년,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 등을 들 수 있다.

(6)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

우리가 상담하는 대상인 사람들은 진공상태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인간의 고통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자신의 죄, 타인의 죄, 사탄, 원죄, 그리고 하나님이다. 또한 고통에는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있는데, 성경이 원인을 알아내는데 항상 분명한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내담자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경의 완전한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게 되거나 남을 정죄하게 된다.

(7)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이다.

2) 기독교상담의 독특성

전요섭은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 기독교 상담의 독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¹⁷⁾

첫째, 성경적 상담 : 기독교 상담은 성경과 신학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기독교 신앙인에 의한 상담

셋째, 은혜의 방편이라는 신앙적 요소의 활용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성경말씀, 기도, 금식, 성만찬, 세례, 찬양, 안수, 예배 등).

넷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담

다섯째, 교회와 신앙 상황의 상담

여섯째,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 행동변화

전요섭의 기본적인 독특성의 원리제시와 함께 Collins의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제시들을 검토할 것이다.

(1) 기독교 상담의 기본 전제¹⁸⁾

- 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실재하시며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
- ② 우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 ③ 인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
- ④ 인식론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인간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을 오류 없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 ⑤ 병리학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원초적인 죄와 종종 내담자 자신의 죄로부터 유발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 ⑥ 죄책감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도 있다.

(2) 기독교 상담의 목표¹⁹⁾

- ①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의 헌신을 권고하는가?
- ②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영적 성장을 자극하는가?
- ③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는가?
- ④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리스도인의 표준과 태도, 삶의 모습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가?
- ⑤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고, 인간적인 표준에 의한 삶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가?

기독교 상담에서는 위와 같은 신학적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다.

(3) 테크닉²⁰⁾

기독교 상담자들이 취하는 테크닉의 선택 경향을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많은 표준적인 상담 테크닉들을 사용하며, 둘째는 도덕적, 성경적, 신학적 입장을 따라 자신의 입장과 다른 일반 상담자의 테크닉들을 사용하지 않고, 셋째는 일반 상담자들은 거부할지도 모를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기독교 상담의 테크닉은 그 전제나 목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개 일반 상담의 테크닉과 유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반 상담의 테크닉과 아주 다른 면이 있고, 또 있을 수 밖에 없다.

필자는 기독교상담의 기본원리와 기독교 상담의 독특성을 고찰하면서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다. 정체성과 관련된 통합이란 문제를 생각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상담은 다른 학문과 대화를 하든지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물론 필자의 견해는 아니다). 기독교의 관점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²¹⁾

- ① 배신한 베드로(마 26:74)가 어떻게 그의 그림자가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행 5:15)으로 변했는지
- ② 어떻게 휴식도 없는 귀신들린 자(막 5:5)가 아주 조용한 제자(막 5:15)가 되었는지
- ③ 복수심 있는 유대사람 요한(눅 9:53-54)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요일 4:7)가 되었는지
- ④ 피에 굶주린 박해자 사울(행 9:1)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의 형제(행 21:13)가 되었는지
- ⑤ 불미스러운 평판의 사마리아 여인(요 4:17-18)이 어떻게 진리의 전도자(요 4:29)가 되었는지
- ⑥ 차가운 마음의 빌립보 간수(행 16:24)가 어떻게 동정적 친구(행 16:33)가 되었는지 등.

이러한 예들 속에서 다른 어떤 상담이론과 기법이 가질 수 없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위대한 영적 자원들을 발견하게 된다.

- ① 예수 그리스도의 피
- ② 하나님의 말씀
- ③ 예수의 이름
- ④ 성령의 기름부음
- ⑤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

기독교 상담자가 이것들을 실천한다면, 기독교상담은 지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때문에 기독교상담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신학의 체계를 잘 가르쳐야 한다.

3.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교육

“교육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무엇’을 이라는 것에 대해 두가지로 논할 것이다. 왜 정체성이 중요한지를 기독교상담자에게 교육해야 하고 신학적 기초로서 기독교적 관점을 확립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1) 기독교적 관점 확립

양승훈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사건이나 상황, 자신을 포함한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 또는 판단의 기본이 되는 전제의 틀”²²⁾을 세계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 혹은 틀을 기독교상담은 상담자들로 하여금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1) 성경적 신관 확립²³⁾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며, 우주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사랑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다.

(2) 성경적 인생관 확립²⁴⁾

인간은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뻐하여야 마땅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며 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자인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생에 이르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3) 성경적 세계관 확립²⁵⁾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인다. 하나님은 이 같은 우주를 인간의 노동의 장소로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4) 성경적 가치관 확립²⁶⁾

성경적 가치들은 쾌락, 즉각적인 만족, 실익 혹은 변화에 의한 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이다. 십자가와 영원한 도성의 가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다.

(5) 성경적 역사관 확립²⁷⁾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시다. 역사의 시작도 과정도 종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류 역사는 선악의 대립적 역사이며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위하여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셨다. 역사는 시원적 종말적 역사(始原的 終末的 歷史)이다.

(6) 사명관 확립²⁸⁾

일반적으로 사명이라는 말은 사람이 그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자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수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의미한다. 사명에는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명 수행자는 명령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자각하고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사명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독교적 관점이 확립되면, 마이클 거슨처럼 “정치에서 종교적 이상에 관한 부분이 빠진다면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원천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²⁹⁾라고 반박할 수도 있고, “진화론은 생물의 기원에 관한, 사실이 아닌 하나의 이론”³⁰⁾이라고 창조론을 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담자의 양성이 기독교상담의 사명이다.

2)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의 중요성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Paul W. Pruyser가 들고 있는 예를 소개한다.

“아버지는 실업자이고 집안의 생계를 어머니가 책임지고 아이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 하나가 범죄자이며 설상가상으로 살고 있는 전세방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한 가족을 예로 생각해보자.”³¹⁾

이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사회사업자는 이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는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가난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신병리학자는 불안정하게 가정의 전권을 갖고 있는 억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나친 의존과 아버지를 동일시 대상으로 갖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정신병리학자는 이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는 역할 혼동 또는 역할 변화에서 나타나는 혼합되고 불안정한 정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자(목사)는 여러 해 동안 이 가정을 잘 알고 있고 때때로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정의 실질적인 문제는 남편의 불신앙과 도덕적인 방종, 즉 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타의 의견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다.³²⁾

Pruyser는 앞에서 제기된 치유전문 분야들 간의 우열에 대한 문제들은 Whitehead의 지식에 대한 관점에서 극복될 수 있다고 제시하는데, 그것은 다학문적 대화와 협력으로 명명되는 것이다.³³⁾ 부연하자면, 모든 학문은 각자의 독특한 실재(Reality)를 다룬다. 모든 치유전문분야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 학문과 다양한 치유전문분야들은 문제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전문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관점은 부분적이며 제한적이고 특별한 것이고, 어떤 관점도 다른 관점보다 더욱 실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³⁴⁾ 주된 학문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 이 모든 관점을 하나의 종합적인 관점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상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뼈대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리되었으나 동등하다는 견해(Separate Put Equal)³⁵⁾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크리스천의 신앙과 생활을 포함한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들을 취급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의학, 치학, 그리고 심리적인 질병과 같은 많은 영역은 독특한 크리스천의 책임 밖으로 몰아내고 이런 질병은 자격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토스트 샐러드(Tossed Salad)³⁶⁾

통합에 관한 두 번째 접근을 토스트 샐러드를 준비하는 전략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맛있는 혼합물을 만들기 위하여 그릇에 함께 섞는 방법이다. 이 접근은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라기 보다도, 성경적 전제 속에서 심리학적 개념을 조심성 있게 세밀히 조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심리학적 사고에 성경적 개념을 첨가한다.

(3) 느끼한게 없다(Nothing Buttery)³⁷⁾

이 접근은 심리학을 무시함으로써 통합의 문제를 다룬다. 그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다.

(4) Spoiling the Egyptians³⁸⁾

이 접근은 우리가 만일 기독교적인 전제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의 개념을 성경에 비추어서 걸러낸다면 우리는 세속 심리학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Pruyser와 Crabb의 고찰을 통해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정체성 교육을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는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왜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이 중요한지를 상담자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상담자들은 불신자들의 사상들과 배움들을 무시할 여유를 가질 수 없다. 기독교상담자들은 세속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의 지식을 계속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의 중요성을 교육한다면, 예비 기독교상담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적어도 심리학을 연구하는 시간 이상을 성경연구를 위해 쓰게 될 것이다.

Pruyser의 제안대로 통합은 정체성을 가진 학문들 간의 대화와 협력이라기보다는 정체성의 관점에서 선택이 더 기독교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개념은 각각 내적인 의미와 외적인 의미를 지니며, 내적인 의미는 외적인 의미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지향성을 지닌다. 이때, '외적인 것'이라는 말은, '표면적인 것'이라는 뜻이라기보다, '밖에 초월하여 있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진리이다. 기독교교육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한편으로 실지 기독교교육의 상태가 어떠하며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적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내적인 의미는 외적인 의미에 병합된다는 점에서 보면 내적인 의미는 비록 외적인 의미에 항상 종속됨을 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초월하여 있는 이 '외적인 것'과 생생한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³⁹⁾

이것이 바로 '통합'의 핵심이요, 요체이다. 즉, 통합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생한 유기적 연합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통합의 참된 구심점을 상담에 올바르게 적용할 때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은 확립될 것이고 이런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의 중요성이 교육될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기독교상담자의 양성"⁴⁰⁾은 가능해질 것이다.

III. 닫는 글

교육의 이념, 본질, 목적, 목표 등과 아울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교육내용이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문제영역이 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성장 발전은 물론, 사회의 질과 향상마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가 예

비 상담자들 개개인의 성장 발전은 물론, 한국교회의 질과 향상마저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하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상담자를 배출할 것인가의 질문과 함께 그에 따른 정체성 교육이 확립되어야 한다. 즉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는 여덟 개의 항의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해야 한다.

때문에 필자는 이 글에서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이란 교육을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에서는 꼭 예비상담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 내용은 기독교상담의 독특성과 함께 기독교적 관점과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의 중요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해 본다.

【 참고문헌 】

- Adams, J. E. *More Than Redemption*. Michigan : Baker. 1979.
- . *The Christian Counsellor's Manual*. 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4.
- Collins, G. R. (ed.) *Helping People Grow*. 정석환 역. 「그리스도인을 위한 카운슬링 가이드」 부산 : 기독지혜사. 1992.
- . "Introduction : Approaches to Christian Counselling". *Helping People Grow*. Collins, ed. L.A. : Vision House. 1988.
- . *Christian Counseling*. Dallas : Word. 1988.
- . *Effective Counselling*. 정동섭 역. 「효과적인 상담」 서울 : 두란노서원. 1984.
- Cosgrove, M. P. *Psychology Gone Awry*. Grand Rapids : Zondervan. 1976
- Crabb, L. J. *Effective Biblical Counsel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82.
- Gaebelein, F. E. *The Pattern of God's Truth*. 이창국 역. 「신본주의 교육」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Harper, N. E.. *Making Disciple :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20th Century*. 이승구 역.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 기독교교육」 서울 : 엠마오. 1992.

- Karasu, T. B. "Psychotherapies : An Overview".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Aug. 1977.
- Marmor, J. "Recent Trend in Psychotherap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80.
- Pruyser, P. W.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이은규 역. 「생의 진단자로서 목회자」 서울 : 동서남북. 2000.
- Thompson, F. C. *The New Chain-Reference Bible*. Indiana : B. B. Kirkbride Bible. 1964.
- 「중앙일보」 2005년 2월 1일자. 17면.
- 「중앙일보」 2005년 7월 13일자. 3면.
-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 CUP. 2005.
- 정원식, 박성수.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 : 교육과학사. 1984.
- 전요섭.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좋은나무. 2001.
- 조석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의 신학적 입장」.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퇴수회 자료집」 2003. 6.
- 황규명 외 11인.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 서울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후주]

- 1) Jay E. Adams, *More Than Redemption* (Michigan : Baker, 1979), 3.
- 2) 정원식, 박성수,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1984), 259-260.
- 3) T. B. Karasu, "Psychotherapies : An Overview",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Aug. 1977) : 851-852.
- 4) Gary R. Collins, "Introduction : Approaches to Christian Counselling", *Helping People Grow*, Collins, ed.(L.A. : Vision House, 1988), 9-27.
- 5) Lawrence J.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2), 16.
- 6) Crabb, 23.
- 7) Crabb, 133-134.
- 8) Crabb, 158.
- 9) Crabb, 171-184.
- 10)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Dallas : Word, 1988).
- 11) Gary R. Collins, *Effective Counselling*, 정동섭 역, 「효과적인 상담」 (서울: 두란노서원, 1984).
- 12) M. P. Cosgrove, *Psychology Gone Awry* (Grand Rapids: Zondervan, 1976), 37-107.
- 13) J. Marmor, "Recent Trend in Psychotherap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80), 409-416.
- 14)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lor's Manual*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4), 13-15.

- 15) 황규명 외 11인,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41.
- 16) 황규명 외 11인, 41-48.
- 17) 전요섭,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서울: 좋은나무, 2001), 7-21.
- 18) Gary R. Collins(ed.) *Helping People Grow*, 정석환 역, 「그리스도인을 위한 카운슬링 가이드」(부산: 기독교지혜사, 1992), 48-51.
- 19) Collins, 51-52.
- 20) Collins, 52-54.
- 21) Frank C. Thompson, *The New Chain-Reference Bible*(Indiana : B. B. Kirkbride Bible, 1964), 28(844).
- 22)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서울: CUP, 2005), 33.
- 23) 조석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의 신학적 입장”,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퇴수회 자료집」(2003. 6), 24.
- 24) 조석만, 24.
- 25) 조석만, 24.
- 26) Daniel, Wade, Gresham, 67.
- 27) 조석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의 신학적 입장”, 25.
- 28) 조석만, 25.
- 29) 「중앙일보」 2005년 2월 1일자, 17면.
- 30) 「중앙일보」 2005년 7월 13일자, 3면.
- 31) Paul W. Pruyser,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이은규 역, 「생의 진단자로서 목회자」(서울: 동서남북, 2000), 13.
- 32) Pruyser, 13.
- 33) Pruyser, 14.
- 34) Pruyser, 14.
- 35) Crabb, 35-36.
- 36) Crabb, 37-43.
- 37) Crabb, 43-51.
- 38) Crabb, 51-57.
- 39) Frank E. Gaebelein, *The Pattern of God's Truth*, 이창국 역, 「신본주의 교육」(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44-45.
- 40) Norman E. Harper, *Making Disciple :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20th Century*, 이승구 역,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 기독교교육」(서울: 엠마오, 1992), 16.

【 Abstract 】

A Study on the Identity and Education
of Christian Counselling

Eun-kyoo Lee
(D.R.E., Anyang University)

The main approach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ypes of theories, elements and premises in Christian counselling and general counselling in order to point out the fundamental differences that make integra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impossible to achieve. Moreover, in an attempt to define the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ling,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principles of Christian counselling and identifies idiosyncracies inherent to Christian counselling. The conclusion reached here is that the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ling, which is clearly built upon a Theological structure,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counselling.

Finally, in order to develop the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ling,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Key words: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ling, Christian point-of-view, Idiosyncracies of Christian Counselling, Integration, Principles of Christian Counselling